

글로벌리즘과 지역정당

지역정당, 풀뿌리 민주주의와
초국적 연대의 연결고리

공석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kong@snu.ac.kr

2026 직접민주주의박람회 | 대의제의 과두화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으로

지구시민사회는 가능한가



가능성은 이미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다

지구적 의제를 지역의 책임과 결합할 때 시민사회는 민주적 힘을 얻는다

초국적 사회운동 이론의 성과와 한계

성과

부메랑 효과

국내 통로가 막힌 요구가 국제 네트워크를 거쳐
국가와 제도를 압박한다

나선형 과정

외부 압력이 부인과 전략적 양보를 거쳐
규범의 제도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한다

초국적 옹호망

정보와 상징, 책임 추궁과 지렛대를 결합해
국내 운동의 자원과 정당성을 확장한다

한계

대표성과 자원 비대칭

국제 NGO와 대형 회의 중심의 연결은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 번역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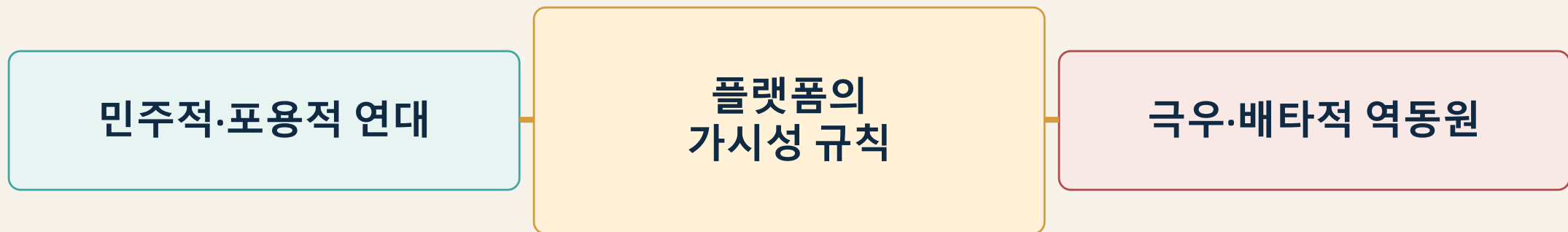
공통 규범과 프레임은 국가별 정치기회구조와
지역의 역사·관계에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조직의 부족

디지털 확산과 일시적 연대만으로 장기 신뢰,
공동 결정, 실행 역량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과제: 국제적 연결을 지역의 대표성·책임성·지속성으로 전환할 정치적 매개

플랫폼화된 경합적 시민사회



같은 플랫폼이 증언과 연대를 확산하면서
혐오, 음모서사, 민족주의도 증폭한다

경쟁의 대상은 접속 자체가 아니라 주목, 신뢰, 대표성, 정치적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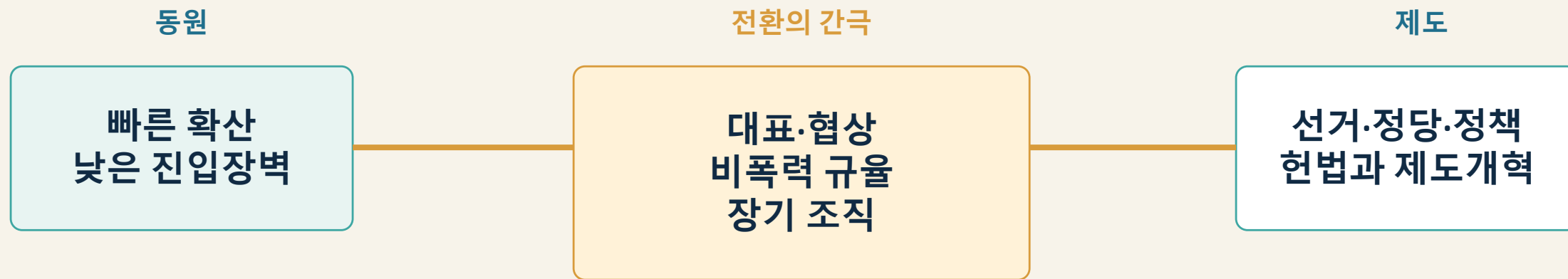
막힌 미래의 세대정치



청년은 미래로 이행할 통로가 막힌 경험에서 정치적 주체가 된다

생활세계의 좌절이 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디지털 동원의 성과와 간극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을 다시 등장시키지만 지속적 제도 역량이 필요하다

지역정당은 직접 참여와 책임 있는 대표를 연결하는 제도적 실험이다

지구시민사회와 초국적 사회운동

지구시민사회

인권·평화·생태·돌봄처럼
국경을 넘는 문제의 공론장

초국적 사회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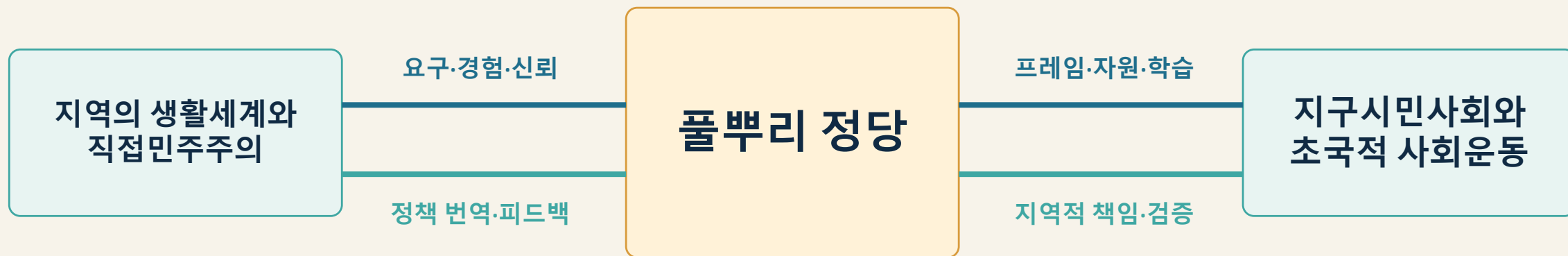
정보·자원·문제들·행동방식을
국경 너머에서 공유하는 실천

민주주의 회복

국가 안의 시민 요구를
더 넓은 공론장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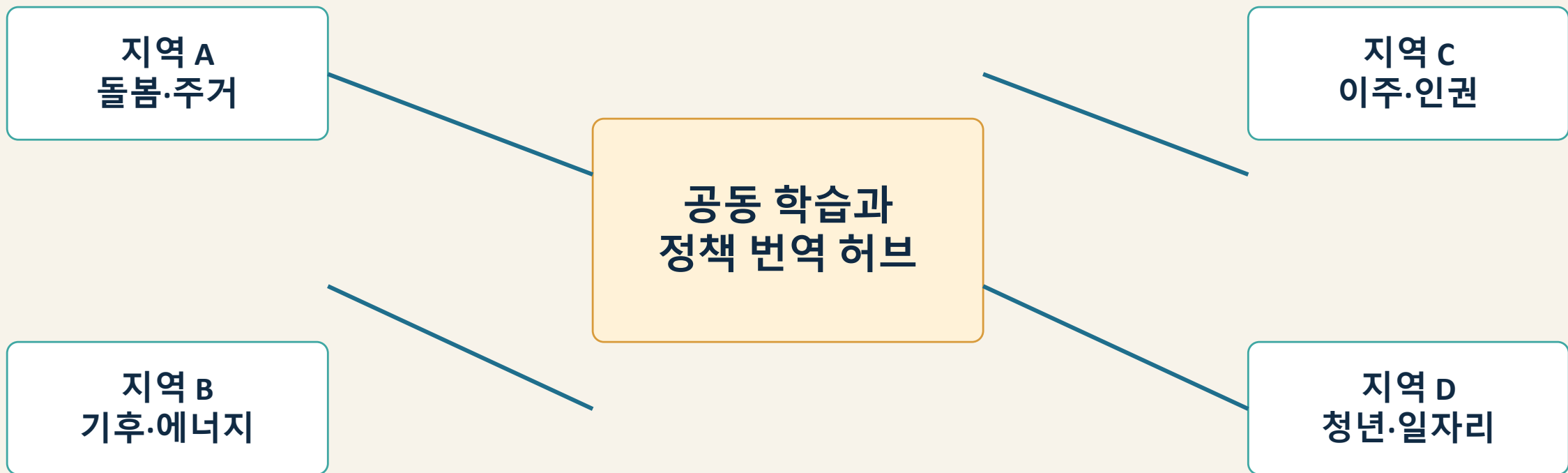
국제 NGO 중심 모델과 일시적 디지털 동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세계에 책임지는 정치적 매개가 필요하다

글로벌리즘의 정치적 매개



직접 참여, 책임 있는 대표, 초국적 연대의 순환

다중심 풀뿌리 정당의 초국적 연대



지역의 차이를 지우지 않고 서로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연대

돌봄 민주주의: 접촉능력을 회복하는 정치

돌봄은 사적 부담이 아니라
상호의존을 조직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누가 돌보고, 누가 배제되며, 누가 결정과 평가에
참여하는가를 공적 질문으로 전환한다.

Tronto 2013 · Kong & Lim 2026

민주적 성과

필요가 권리와 공공책임으로 전환되는가?

고립된 주민

도움의 대상

관계의 형성

접촉·경청·상호부조

시민으로 전환

의제 제안·설계·평가

지역에 뿌리내린 돌봄 민주주의 사례

서울 돌봄의원

방문의료

의료·복지·주거·이동의
통합

한강사회적협동조합

생태 돌봄

시민과학·샛강·일상적
협동

일본
에이겐지·다테바야시

지역 통합돌봄

고령화 지역의 생활권
연계

대만
타이둥 두란

공동체 돌봄

장소·문화·관계를 살린
실천

복제가 아니라 번역

다른 지역의 원리를 지역의 제도·관계·자원에 맞게 변형한다
돌봄 민주주의는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관계성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Kong & Lim 2026 · Manzini 2019)

돌봄 민주주의에서 지역정당의 네 역할

1

발견

공공영역 밖의 필요와
숨은 돌봄 부담을 찾는다

2

연결

주민·전문가·행정의
분절된 자원을 잇는다

3

제도화

돌봄을 권리·예산·조례와
공공책임으로 전환한다

4

순환

지역 해법을 공유하고
다른 경험을 다시 번역한다

지역정당의 건강성은 동원의 규모보다

외로운 시민을 이웃·협력자·의제 제안자·대표로 성장시켰는가로 판단한다

글로벌 연계의 세 가지 장애물과 도전

1

정치기회구조

중앙·지방의 권한과
국가별 제도 통로의 차이

2

프레임 과정

전지구적 언어를 지역에 맞게
해석·응용·변형하는 능력

3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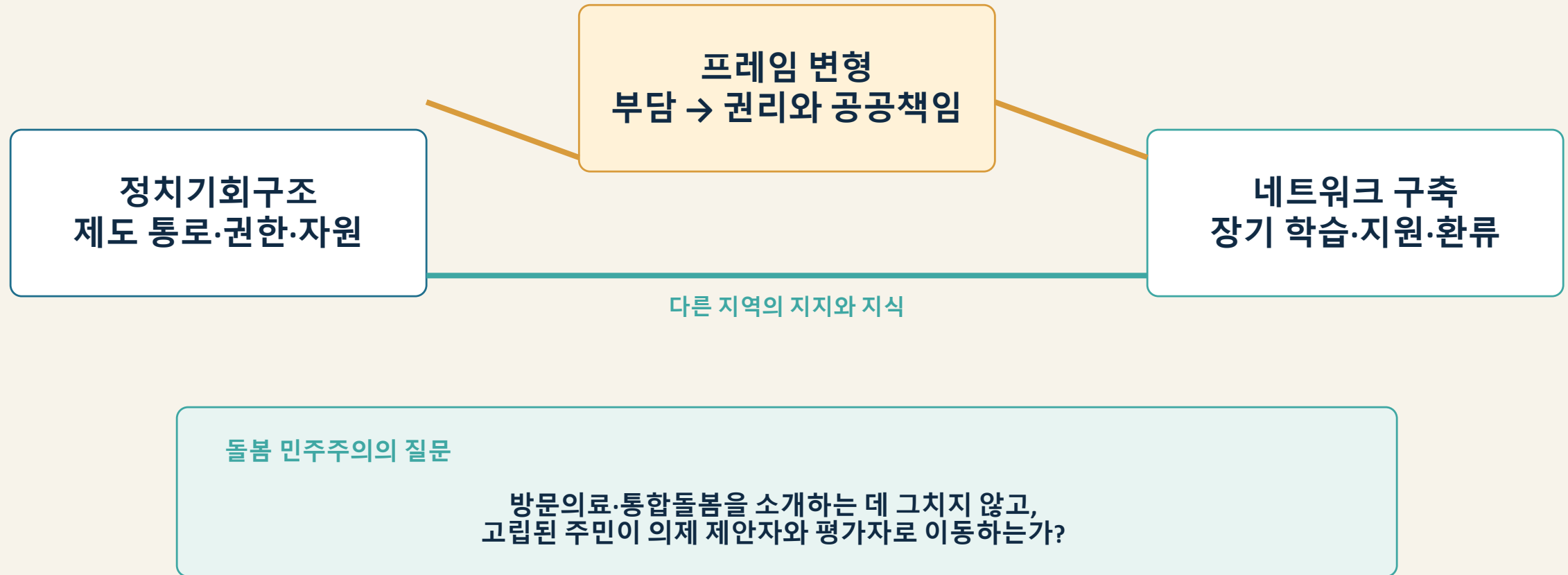
디지털 연결을 장기 신뢰와
공동 역량으로 바꾸는 일

연대·지지 네트워크 효과

지역의 정책·권한·관계로 전환

어느 한 고리가 끊기면 외부 의존·상징 캠페인·일회성 사업으로 축소된다

세 과정의 순환: 돌봄 민주주의로 검증하기



이론적 합의와 정책 과제

이론적 합의

1. 축소가 아닌 시민공간의 선택적 재편
2. 탈매개화가 아닌 새 매개의 권력과 통제
3. 국제 NGO에서 지역정당·주민·디지털망으로
4. 규모보다 관계·담론·책임의 정당성
5. 민주주의를 관계와 돌봄의 재생산으로 확장

정책 과제

1. 지역정당 설립·선거 참여의 제도 공간
2. 발안-숙의-예산-집행-평가의 순환
3. 동네 공간·관계 조직자·이동·돌봄 지원
4. 생활권 통합돌봄과 당사자 수정권
5. 번역·보안·법률·공동지식의 공유 기반

정책의 초점: 참여기구의 추가 → 접촉과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한국에서 시작해, 아시아와 전지구적 연대로

- 한국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의 제도적 결합
- 아시아 청년운동·지역 정치실험의 비교와 상호학습
- 세계 지역에서 검증된 혁신을 초국적 공공재로 순환

지구시민사회는 연결의 크기가 아니라
지역의 책임을 지구적 협력으로 조직하는 힘에서 가능해진다